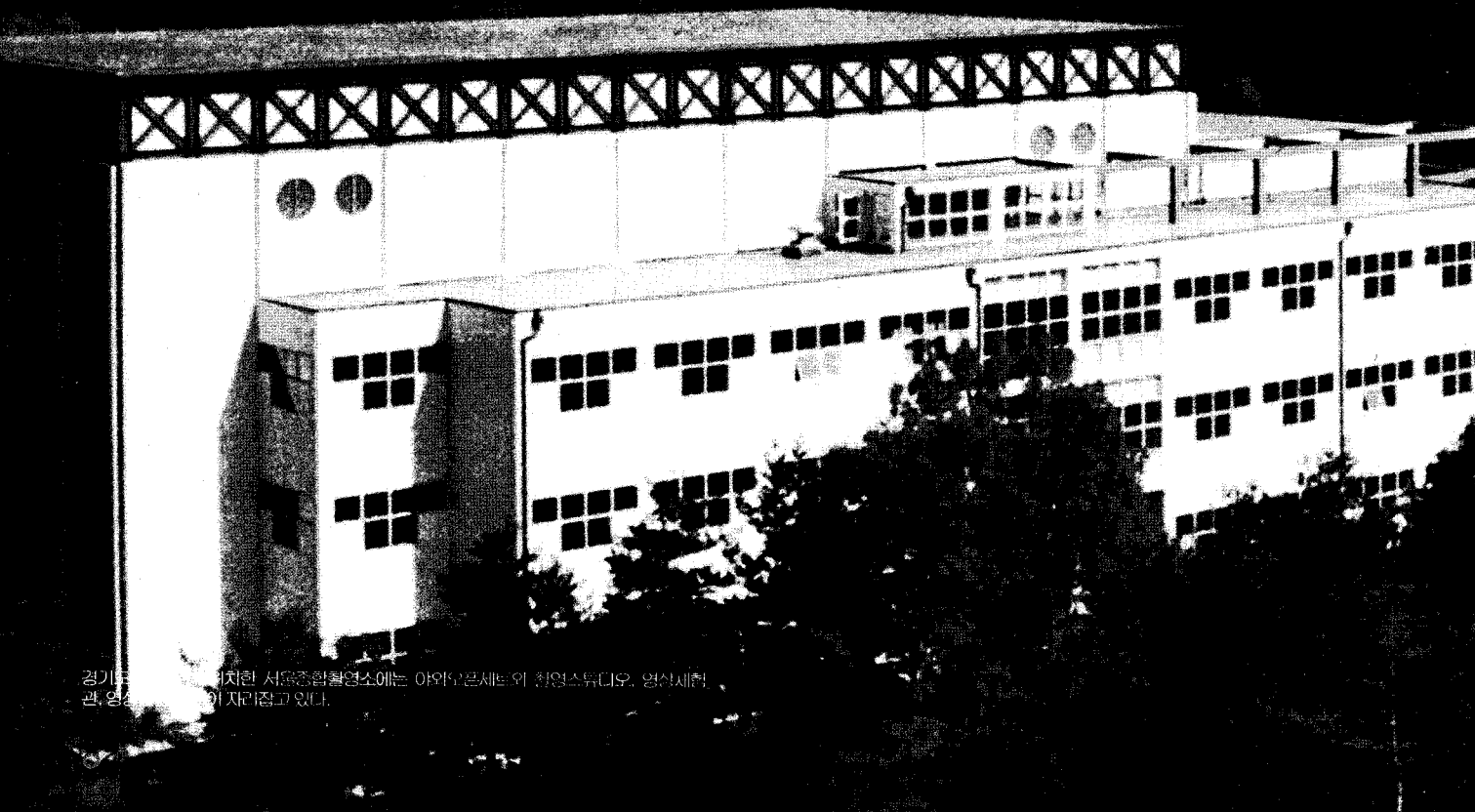


화제의 ESCO현장을 가다 ● 영화진흥위원회 · 서울종합촬영소

ESCO사업으로 거듭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서울종합촬영소와 영화진흥위원회
홍릉사옥이 ESCO 조명사업을 실시했다. 전체 조명기구를 고효율 형광등과 안정기로 교체한 것.
영화진흥위원회는 총 1억2천여만원이 투자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8%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인숙 기자 ▶ (kis@energycenter.co.kr)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종합촬영소에는 아워오르세사의 촬영스튜디오, 영상제작관, 영상제작실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영화의 Mecca



한국영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사옥과 영화제작의 모든 것을 갖춘 서울종합촬영소가 ESCO 조명사업으로 새단장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홍릉사옥과 서울종합촬영소의 ESCO 조명공사를 지난 1월 8일부터 보름동안 실시했다. 두 곳 모두 전체 조명기구를 고효율 형광등과 안정기로 교체한 것. EPS KOREA가 시공을 맡은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2천여만원이 소요된 대규모 공사였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약 3만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종합촬영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66,428Kwh가 절감되는 홍릉사옥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발휘된다. 공사이후 1년이면 약 274,656Kwh의 전력소모가 줄어 매년 2,153

만원의 금액이 절약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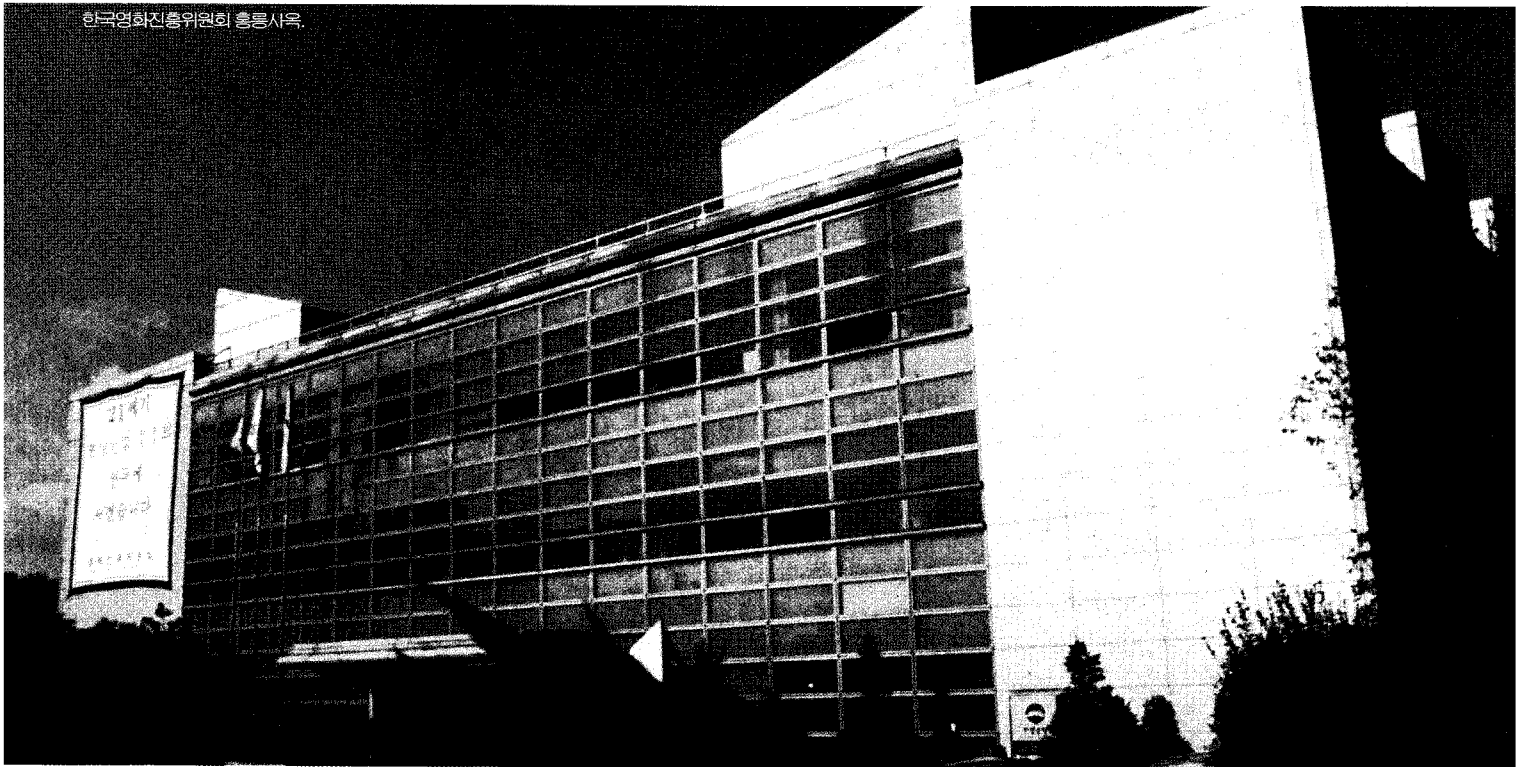
**전체 조명기구 고효율로 교체
예산 부담없이 38% 에너지절약 효과**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판문점 세트, '신장개업'의 지방상점가 세트, '유령'의 특수촬영 세트 등 영화속 배경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서울종합촬영소는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야외 오픈세트, 전통한옥 '운당', 의상소품실, 촬영스튜디오, 영상체험관, 영상문화관 등 모든 시설에 사용되는 조명 개체수량만 해도 3,000개 가까이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총무부의 김용봉 팀장은 조명교체만으로 기존보다 약 38%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볼 수 있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판문점 세트, '신장개업'의 지방상점가 세트, '유령'의 특수촬영 세트 등 영화속 배경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서울종합촬영소는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야외 오픈세트, 전통한옥 '운당', 의상소품실, 촬영스튜디오, 영상체험관, 영상문화관 등 모든 시설에 사용되는 조명 개체수량만 해도 3,000개 가까이 된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홍릉사옥.





① 전통한옥 '운당'.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조선조 후기 양반가옥으로 지난 94년 서울종합촬영소에 복원됐다. 조선조 후기 서울·경기지방의 정통시대부 가옥 형태를 근간으로 한 전형적인 외가로 인건형 168평(7채) 규모다. 전통사극 촬영시 고정세트용으로 활용되며 바둑 대국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② 서울종합촬영소내 영화문화관. 영화의 탄생에서부터 미래 영상에 이르기까지 영화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화 박물관이다.
 ③ ④ 영화진흥위원회 현상실 내부 조명교체사업 전(사진 위)과 후(사진 아래)
 ⑤ 영화진흥위원회 기술팀 심덕주 주임과 동료들.
 ⑥ ESCO 조명사업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 실내조도가 한층 개선되었다.

됐다고 설명했다.

김팀장은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며 “ESCO 조명사업 덕분에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없이 실내가 훨씬 밝아진데다 에너지비용도 줄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SCO를 잘 모르는 일반 직원들도 조명을 교체한 이후로 눈의 피로가 적고 사무실 내부가 한결 밝아져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40개월이면 투자비 모두 회수 적시에 실시한 ESCO조명사업

“ESCO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자세한 건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된 건 불과 2, 3년 전쯤인데 그때 한참 IMF 경제위기로 인해 너도나도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던 시기가 저희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체 실시방안을 찾고 있었습니 다.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에너지절약방침 가운데 하나로 ESCO사업을 권장해 이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기술팀의 심덕주 주임은 “홍릉사옥이 95년 준공 이후 조명시설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적시에 ‘ESCO’라는 좋은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그는 “공사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절감량은 운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진단결과에 의하면 홍릉사옥과 촬영소에서 매월 각각 50만원, 180만원씩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0개월의 회수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절감되는 금액이 자체 몫으로 남게 된다.

에너지관리 경력 10년인 심덕주 주임의 신조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는 설비만큼은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게끔 운용하자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공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 절약효과도 클 뿐 아니라 정부 에너지절약시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CO사업을 높이 평가한 그는 날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영화처럼 ESCO도 발전이 거듭될 길 바랬다.